

10/18/15

설교 제목: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살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겔 37:1~12

- (겔 37: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 (겔 37: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 (겔 37: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절관주** 사 26:19, 요 5:29, 롬 4:17
- (겔 37: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 (겔 37: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절관주** 시 104:30
- (겔 37: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 (겔 37: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 (겔 37: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 (겔 37: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절관주** 겔 36:10, 겔 39:25, 사 49:14
- (겔 37: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절관주** 호 13: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선민으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요? Business 를 잘해서요?

나라가 크고 강해서요?

(신 7: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 7: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 7: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 7:10)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신 7:11)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말이 맞지요.

인간들은 여러가지로 부족한지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집니다. 한마디로 재는 것이지요. 사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말입니다.

Disgusting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짓은 부족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러시겠습니까?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아무 이해 관계없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30 년이나 종살이 하던 에굽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셨고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눈을 돌렸고 그런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서서 고난을 통해 다시 부르시면 돌아와 회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 오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격노를 사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떨며 두려워했던 위대한 이스라엘이 국가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리고 또 다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 설마
이대로 놔 두시겠어. 우리가 누구가? 선민아니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안일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타락 즉 다른 신을 숭배 하는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해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 갈 날 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비보가 날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이제나 저제나 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고 그러기에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은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겔 37: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해 보이지요?

조신하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살 일이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겠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 죽겠다고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 하다가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등을 보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어찌시겠어? 그래도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라고 되뇌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정녕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를 그대로 죽게 놓아 둘 수가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셔서 택하신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같이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당신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으로 돌아
오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곳에 잡혀 온지도 10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망조차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하루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런 모습을 지켜 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듯이 아프셨습니다.

드디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이 바짝 말라 버린 뼈들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겔 37: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짝 마른 뼈가 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겔 37: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겔 37: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겔 37: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겔 37: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겔 37: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룹니다.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항상 두 가지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날 일과 후일 하나님의 날,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앞에 놓여 있는 마른 뼈들은 아마도 전쟁을 하면서 혹은 포로로 끌려와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겔 37: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겔 37: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에스겔이 본 것처럼 마른 뼈가 널부러져 있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죄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 널부러져 있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죄없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뒤집어 쓴 성도들은 사망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혹시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교회에도 적을 두었고 주일 성수도 바쁠 때 빼고는 다 하고 있고 헌금도 나름대로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겔 37: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입혀지면서 걸 모습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생기가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모습이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생기 즉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기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받아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때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지 않습니까?

(요 20: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20: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러분,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고통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살리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을 살리신 주님께서 이시간 여러분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